

# 디지털 토[通]



## 01/ NIA 뉴스

- 강남고속터미널 스마트워크센터 개소
- ICT 융합프로젝트로 지능정보사회 앞당긴다
- 창조비타민 프로젝트 통합보고회 개최
- 다문화 IT 방문지도사 및 멘토 발대식 개최
- 북한이탈주민 정보화교육 실시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한-인니 전자정부협력센터 개소
- 2016년 정부3.0 u-서비스 지원사업 4개 시범과제 추진
- 한국정보화진흥원-시청자미디어재단 MOU 체결

## 03/ ICT 인사이트

- [발표자료] 2016년 지능정보사회의 원년 'Next 정보사회의 도래와 NIA의 사명'
- [영상비평] 우리는 따뜻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 [전문가 기고] 이제 Offline에 플러그인 해야 할 때

## 02/ ICT 보고서

- 독일 신규 첨단기술전략 혁신
- 2015년 ICT를 통한 착한 상상 프로젝트 성과보고서
- [IT & Future Strategy 2015-제13호] 운송수단의 변화동인과 이슈분석
- [IT & Future Strategy 2015-제14호] 빅데이터 시대, 미래전략의 새로운 접근법
- [IT & Future Strategy 2015-제15호] 사물인터넷 수요 및 시장동향
- [IT & Future Strategy 2015-제16호] Beyond Fintech 1.0 : 변화동인 및 이슈분석
- [NEAR & Future 2016년 2월호] 현상에서 미래를 보다
- 2015년 빅데이터산업 10대 뉴스 및 이슈
- 개인정보보호 법제로 인한 빅데이터 활용 한계사례 조사/분석
- SMALLBIG 2015년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지원사업 우수사례
- 2015년 빅데이터 시장현황조사
- 전자정부 해외 동향분석 서비스 : D.gov Edge (2016-2월호)

## 04/ 포토앨범

- 한국정보화진흥원 창립 29주년 기념식

## 05/ 3월 NIA 행사

## 06/ 디지털통 다시보기



# NIA News

## 강남고속터미널 스마트워크센터 개소

우리원과 행정자치부는 1월 28일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 스마트워크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 및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출장 시, 강남고속터미널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전자결재, 영상회의 등을 통해 사무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남고속터미널 스마트워크센터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7층에 183㎡ (56평) 규모로 업무 공간 13석, 회의실, 협업 및 휴게 공간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강남고속터미널센터는 교통 요지에 입지하여, 접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출장수요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며, 영상회의실을 통해 전국의 정부기관과 연계되어 다자간 영상회의가 가능합니다. 또한 높낮이 조절가능 책상과 더불어 공무원증을 이용한 업무 공간 출입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이용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스마트워크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이번 강남고속터미널센터 개소를 통해 더 많은 센터 이용자들이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협업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왼쪽부터, (주)서울고속버스터미널 최병용 대표이사, 디지털비즈니스연구원 김성희 원장, 행정자치부 정윤기 지역발전정책관, 한국정보화진흥원 서병조 원장, 미래창조과학부 신승한 과장, 행정자치부 스마트서비스과 박상희과장



# NIA News

## ICT 융합프로젝트로 지능정보사회 앞당긴다!



▲ 29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개최된 ‘2016년도 ICT 융합프로젝트 추진방향 사전공개 설명회’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 서병조 원장이 ‘ICT 융합프로젝트 추진전략과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우리원과 미래창조과학부는 1월 29일(금)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ICT 융합프로젝트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2016년도 ICT 융합프로젝트 추진방향 사전공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추진되는 ICT 융합프로젝트의 추진계획, 추진방식, 주요일정 등을 사전 공개함으로써, 관심이 있는 기관 및 기업들이 본격적인 사업 공모·발주에 앞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ICT 융합프로젝트 담당자와 기관·기업 담당자간 소통 및 관심분야가 유사한 공공·기업 또는 기업간 상호 협력교류를 유도하기 위한, 열린 네트워크 공간인 “협업 라운지”와 세부 사업별 현장상담을 위한 “오픈 데스크”도 마련되었습니다.

올해 ICT 융합프로젝트는 국가사회 현안 해결과 ICT 융합 新시장 창출을 위해 총 19개 사업(869억원)이

추진되며, 기존 ICBMS (IoT, Cloud, Bigdata, Mobile, Security)에 인공지능(AI)을 융합하여 지능정보사회를 앞당기기 위한 선도적 프로젝트들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및 국가 DB 구축 등에 287억원, K-ICT 사물인터넷 융합실증 및 공공 ICT 웰니스케어 선도 적용에 375억원, 빅데이터 산업경쟁력강화 및 방통융합서비스 고도화 등에 207억원 투입



한국정보화진흥원 서병조 원장은 2016년 주목해야 할 ICT 융합기술로 사물인터넷(IoT), 스마트카, 드론, 3D 프린팅, 가상·증강현실, 인공지능 등을 소개하면서, “올해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지능정보화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선도적 ICT융합 프로젝트를 통해 지능정보사회를 앞당기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NIA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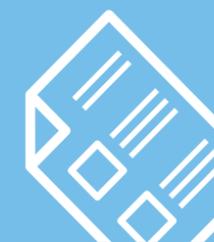
## 창조비타민 프로젝트 통합보고회 개최

우리원은 2월 2일, 한국정보화진흥원 대구청사에서 창조비타민 프로젝트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을 초청하여 “통합보고회 및 합동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통합보고회는 2013년도부터 추진한 창조비타민 프로젝트의 주요추진성과 및 향후 확산계획과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취지로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창조비타민 프로젝트의 성과달성을 위해 사업 담당자와 주관·참여기관 간의 소통 및 관심분야가 유사한 과제 및 기관 간 상호 협력·교류를 유도하기 위한 “합동워크숍”도 함께 개최되었습니다.



2013년도부터 시작된 창조비타민 프로젝트는 지난 2년간 101개 과제를 발굴하여, 경제활성화 및 사회현안을 해결하며 창조경제의 핵심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다. 특히, 협업기반의 산업활력제고 사업을 중심으로 창조비타민 프로젝트는 창업, 해외진출, 상용화, 서비스 확산, 특허 등록 등 약 140여건의 자체성과를 창출함과 동시에 다른 산업과의 동반성장에도 기여하고 있다.



서병조 원장은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것과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지능정보사회의 기술선점화에 대응하고자 ICBMS, AI를 기반으로 우수선도 모델을 기획하는데 있어, “협업기반의 산업활력제고 사업의 기술력과 경험이 융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개선”을 당부했습니다.

# NIA News

## 다문화 IT 방문지도사 및 멘토 발대식 개최

우리원과 미래창조과학부는 2월 19일 정보화진흥원 서울청사에서 국내 다문화가정의 정보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다문화 IT 방문지도사 및 멘토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위촉된 "다문화 IT방문지도사"들은 IT능력평가와 면접을 통해 선발된 이들로 중국, 베트남, 일본, 몽골 등 6개국에서 온 51명의 정보화 소양을 갖춘 결혼이민자들입니다. 앞으로 지도사들은 1년 동안 전국 9개 권역의 다문화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결혼이민자들의 국내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사회 참여를 통한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19일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청사에서 '2016년도 다문화 IT 방문지도사 및 멘토 발대식'이 개최되었다.

다문화 IT 방문지도사들의 정보화교육을 희망하는 9개 권역(서울·경기·인천·부산·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의 결혼이민자는 국민정보화교육홈페이지(itstudy.or.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다문화 IT 방문교육은 2011년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3,176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IT 교육을 수료한 다수의 결혼이민자들이 취업, 창업, 사회활동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서병조 원장은 "다문화가정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서 정보사회의 핵심계층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NIA News

## 북한이탈주민 정보화교육 실시

우리원은 남북하나재단(이사장 손광주, 이하 '재단')과 함께 북한이탈주민의 정보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한다고 2월 25일 밝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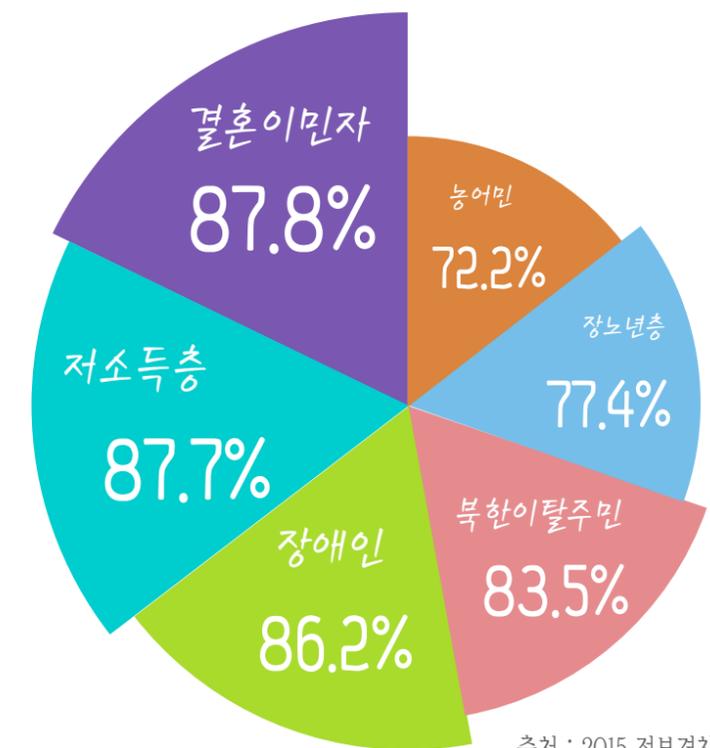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 정보화교육은 지난 2004년부터 정보화를 통해 이들 계층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과 사회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올해에는 정보화 기초교육에서 IT심화 교육에 이르는 정착시기별 맞춤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지원기관인 하나원에서의 컴퓨터 기초교육과 함께 북한이탈주민 전용 정보화교육장(중구 청계천로 소재)에서 실생활에 밀접한 모바일 과정 등 IT실용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제활동 참여를 원하는 이들의 IT관련 분야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웹디자인 기능사와 같은 IT관련 전문 자격증 취득 과정을 신설하여,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개인별 600시간 내외의 정보화 심화교육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2015 정보격차실태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정보화 수준은 일반국민 대비 83.5%로, 정보화 수준이 가장 낮은 장노년층(77.4%)과 농어민층(72.2%)에 약간 앞선 것으로 확인되어, 북한이탈주민의 정보화 수준을 올리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요구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서병조 원장은 "앞으로도 남북하나재단과 협력하여 새로운 정보취약계층인 북한이탈주민의 정보격차해소를 통해 사회통합과 정보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반국민 대비 계층별 정보화 수준

# NIA News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한-인니 전자정부협력센터 개소

우리원은 3월 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행정개혁부(장관 유디 크리스난디)와 전자정부 협력센터를 개소하고 한-인니 전자정부 협력센터 운영규정 및 전자정부 공동협력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통신정보부의 바스키 유서프 이스칸다 차관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양국 간 ICT교류협력 강화를 다짐했습니다.

이번 전자정부 협력센터의 개소는 2014년 한-인니 정상회담 시 우리 측에게 전자정부 협력센터 설치를 제안하여, 두 차례에 걸친 한-인니 전자정부·행정개혁 공동위원회를 통해 2015년 8월 24일 한-인니 전자정부 협력센터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것에 대해 양측이 긴밀히 협의한 결과물입니다.

양국 간 전자정부 협력의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전자정부 협력센터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년간 양국이 함께 운영하며 한국 측에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전자정부 전문기관으로서 센터운영을 총괄하게 됩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서병조 원장은 이번 전자정부 협력센터 개소를 계기로 “한-인니 전자정부 협력센터는 동남아시아 행정한류 전파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 이라고 기대를 피력하였습니다.



◀ 2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행정개혁부에서 열린 '한-인니 전자정부 협력센터 개소식'에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왼쪽에서 여섯번째)과 유디 크리스난디 인도네시아 행정개혁부 장관(다섯번째), 서병조 한국정보화진흥원장(여덟번째), 이인재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아홉번째)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제공

# NIA News

## 2016년 정부3.0 u-서비스 지원사업 4개 시범과제 추진

우리원과 행정자치부는 첨단 정보기술(IT)을 행정업무에 접목하여 새로운 행정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2016년 u-서비스 지원사업 4개 시범 과제를 추진합니다. 올해 추진하는 과제는 대국민 인명구조 수색 시스템 구축, 수출입 위험물 안전관리 체계 구축, 가족협력형 농촌부모 안전 돌보미 사업, u-공유 커뮤니티를 활용한 서초맵 구축 등 총 4개 과제입니다.

추진과제는 중앙정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1차 발굴했고, 이 중 정부3.0 핵심가치 구현을 위해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과제를 중점적으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이들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은 올해 말까지 구축돼, 2년간 시범지역에서 운영되며, 이후 운영성과를 검증해 국민 삶에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판명된 과제는 타 지역으로 확산 추진된다.



# NIA News

## 한국정보화진흥원-시청자미디어재단 MOU 체결

우리원과 시청자미디어재단(CMF · 이사장 이석우)은 3월 11일 시청자미디어재단 회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 미디어 격차 해소 및 활용 증대, 인터넷 및 미디어 역기능 해소 등의 업무 교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밖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였으며,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연계되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올바른 인터넷 윤리의식 형성 및 직업체험 활동 기회 제공

국가정보화 전문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 및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인터넷윤리교육, 정보격차 등 ICT의 발전으로 인해 나타나는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미디어교육 확대와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기반 환경 조성 등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서병조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양 기관의 정보격차·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사업들이 시너지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11일 시청자미디어재단 회의실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 서병조 원장(오른쪽 네번째부터)과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석우 이사장이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 ICT 보고서

## 한국정보화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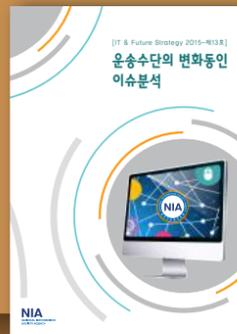
독일 신규 첨단기술전략 혁신



2015년 ICT를 통한 착한 상상 프로젝트 성과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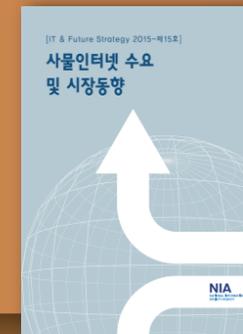
[IT & Future Strategy 2015-제13호] 운송수단의 변화동인과 이슈분석



[IT & Future Strategy 2015-제14호] 빅데이터 시대, 미래전략의 새로운 접근법



[IT & Future Strategy 2015-제15호] 사물인터넷 수요 및 시장동향



[IT & Future Strategy 2015-제16호] Beyond Fintech 1.0 : 변화동인 및 이슈분석



[NEAR & Future 2016년 2월호] 현상에서 미래를 보다



2015년 빅데이터산업 10대 뉴스 및 이슈



개인정보보호 법제로 인한 빅데이터 활용 한계사례 조사/분석



SMALLBIG 2015년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지원사업 우수사례



2015년 빅데이터 시장현황조사



전자정부 해외 동향분석 서비스 : D.gov Edge (2016-2월호)



# ICT 인사이트 \_3월 월례조회 원장님 발표자료



## 2016년 지능정보사회의 원년

Next 정보사회의 도래와 NIA의 사명

2016.3.2.

NIA 한국정보화진흥원

# ICT 인사이트

[발표자료]  
SBS 2016년 지능정보사회의 원년 'Next 정보사회의 도래와 NIA의 사명'

## contents

- I. Next 정보사회의 도래
- II. 우리가 준비해야 할 미래
- III. 지능정보사회의 원년 2016
- IV. 국민체감형 성과 창출

# ICT 인사이트



[발표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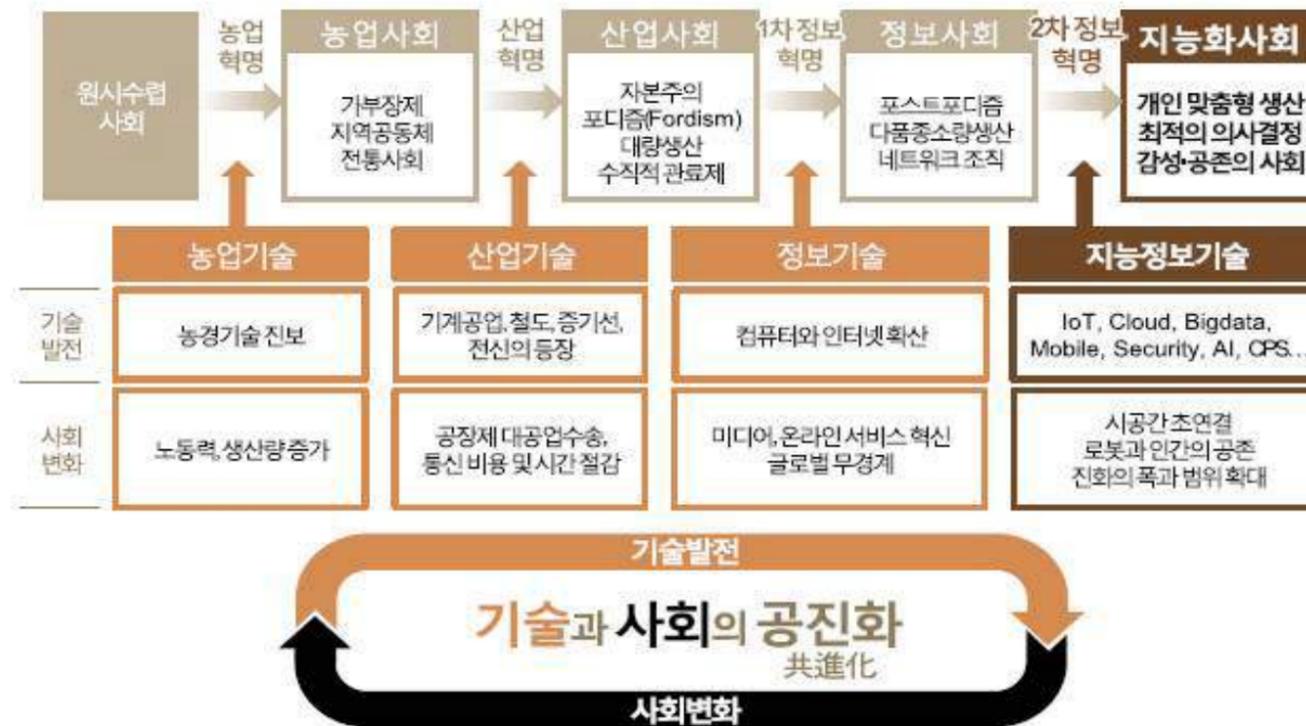
SBS 2016년 지능정보사회의 원년 'Next 정보사회의 도래와 NIA의 사명'



# ICT 인사이트

[발표자료] SBS 2016년 지능정보사회의 원년 'Next 정보사회의 도래와 NIA의 사명'

정보사회를 지나 지능정보사회의 초기 단계에 들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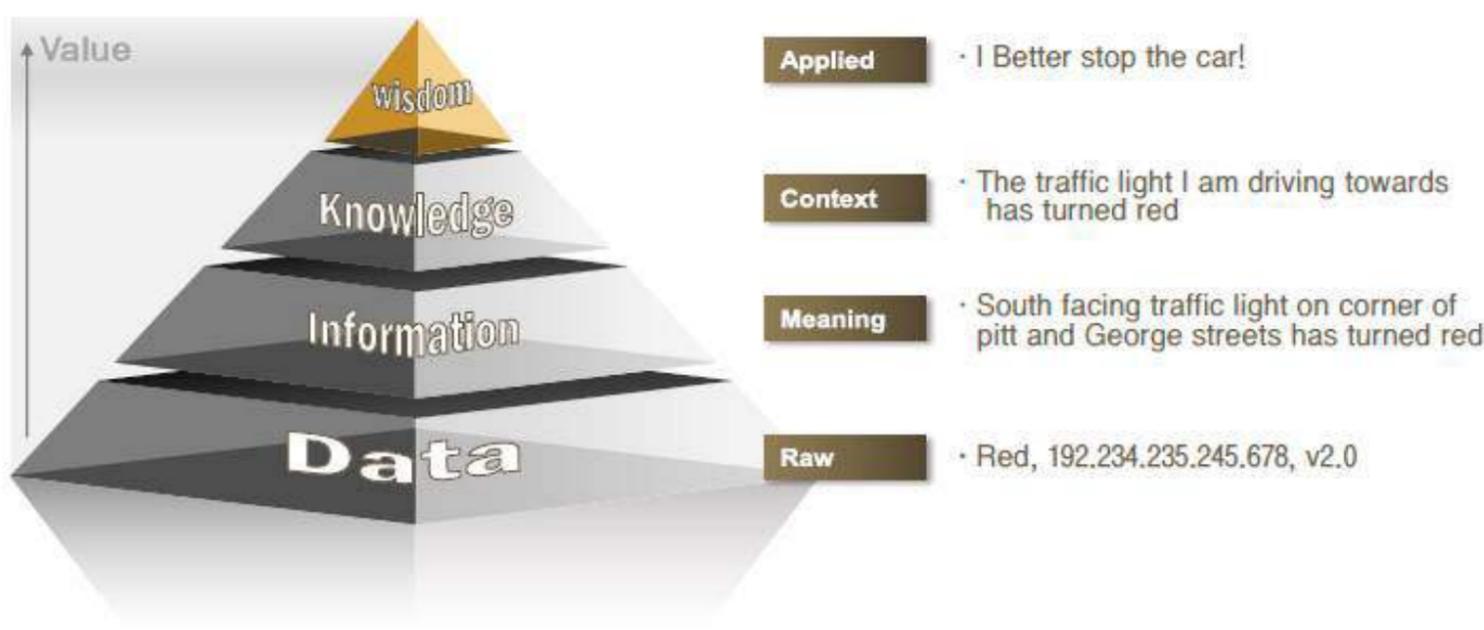
section 01

# ICT 인사이트

[발표자료] SBS 2016년 지능정보사회의 원년 'Next 정보사회의 도래와 NIA의 사명'

## 데이터 중심의 지능정보사회

지능정보사회 가치창출의 기초는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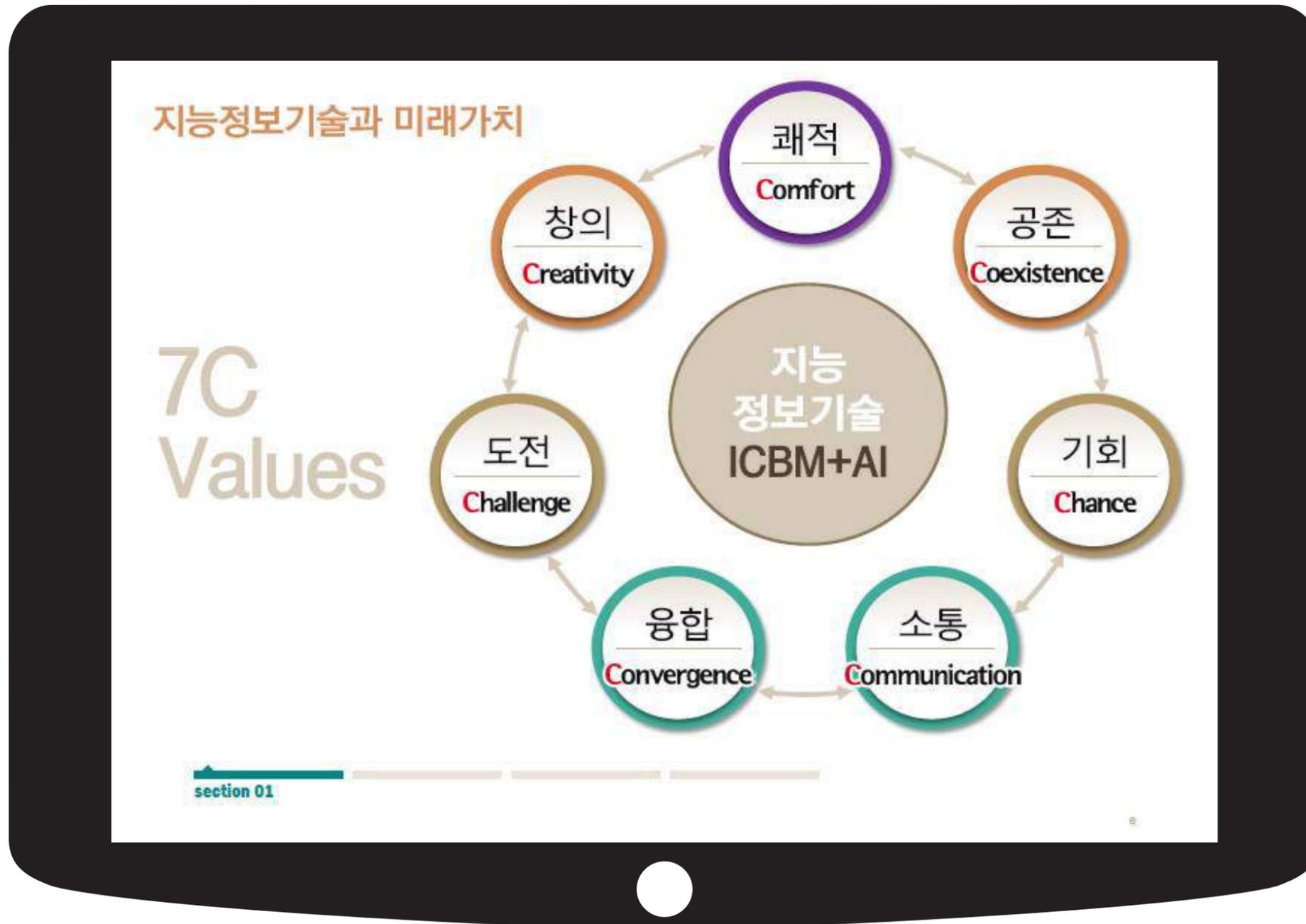
Applied	· I Better stop the car!
Context	· The traffic light I am driving towards has turned red
Meaning	· South facing traffic light on corner of pitt and George streets has turned red
Raw	· Red, 192.234.235.245.678, v2.0

자료 : Wisdom Pyramid, Angus McDonald, 2011 수정안용

section 01

# ICT 인사이트

[발표자료] SBS 2016년 지능정보사회의 원년 'Next 정보사회의 도래와 NIA의 사명'



# ICT 인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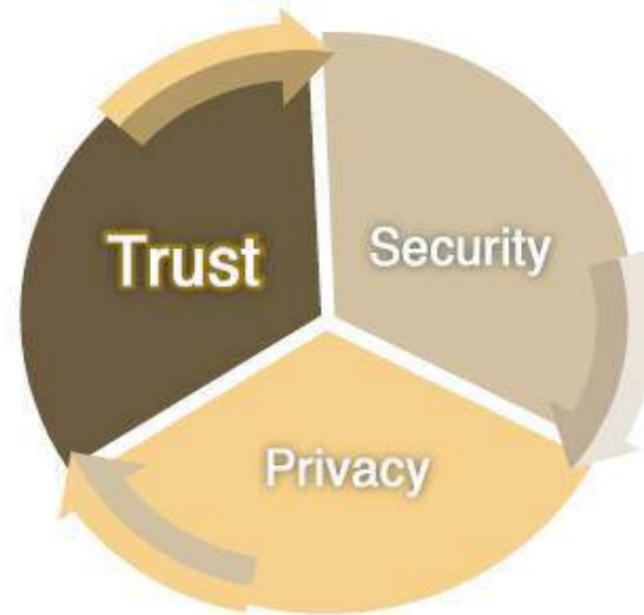
[발표자료] SBS 2016년 지능정보사회의 원년 'Next 정보사회의 도래와 NIA의 사명'

## 지능정보사회의 신뢰 기반 구축

사회 · 기술 · 경제 · 정치 · 일상생활 등 모든 것이 '신뢰' 와 연결

### 신뢰 (Trust)

- 평판 Reputation
- 신임 Confidence
- 믿음 Belief
- 기대 Expectation on the reliability
- 완전성 Integrity
- 안전 Security
- 의존성 Dependability
- 능력 Ability
- 기타 Other characteristics



자료 : 최준규, '미래 지식 데이터 생태계를 위한 Trust Information Infrastructure' 수정인용

section 01

7.

# ICT 인사이트

[발표자료]  
SBS 2016년 지능정보사회의 원년 'Next 정보사회의 도래와 NIA의 사명'

## 우리가 준비해야 할 미래

빅데이터로 본  
경제·사회·기술 3대 분야의  
이머징 이슈 속에서  
미래 위기와 기회 요인을 찾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

# ICT 인사이트

[발표자료]

SBS 2016년 지능정보사회의 원년 'Next 정보사회의 도래와 NIA의 사명'

## 빅데이터로 본 미래사회 변화와 트렌드를 주도할 분야별 이머징 이슈



**경제**

- 차세대 글로벌 경제성장 엔진의 주역... 차별화 전략 필요
- 낙수효과와 모순... 대기업 의존형 성장의 한계
- 높은 가치창출의 원동력... 기업가정신 함양 강조
- 노동인구 이동,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갈등 초래



**사회**

- 고령화 사회의 그늘, 노인범죄 비상
- 현실로 다가오는 인구절벽
-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극화, 수저계급론의 현실
- 신종 전염병의 확산... 예측의 중요성 부각
- 에너지 전쟁 시대... 에너지 효율성 부각
- 로봇, 일자리 위협 vs. 사회문제 해결의 주인공으로 부상



**기술**

- 미디어 서비스도 빠르고 똑똑하게
- 어디든 존재하고 언제든 활용되는 플랫폼
- 내 삶의 드론
- 3D프린팅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 자율주행차는 달릴 수 있을까?
- 세상을 알게하는 똑똑한 데이터
- 사람과 교감하는 로봇
- 웨어러블의 진화는 계속된다
- 정보보호도 이제는 지능화 시대
- 우리 생활 속 가상현실

자료 : NIA, NEAR & Future Monthly 1월호, 2015.1

section 02

ICT 인사이트 

[발표자료] SBS 2016년 지능정보사회의 원년 'Next 정보사회의 도래와 NIA의 사명'



# 지능정보 사회의 원년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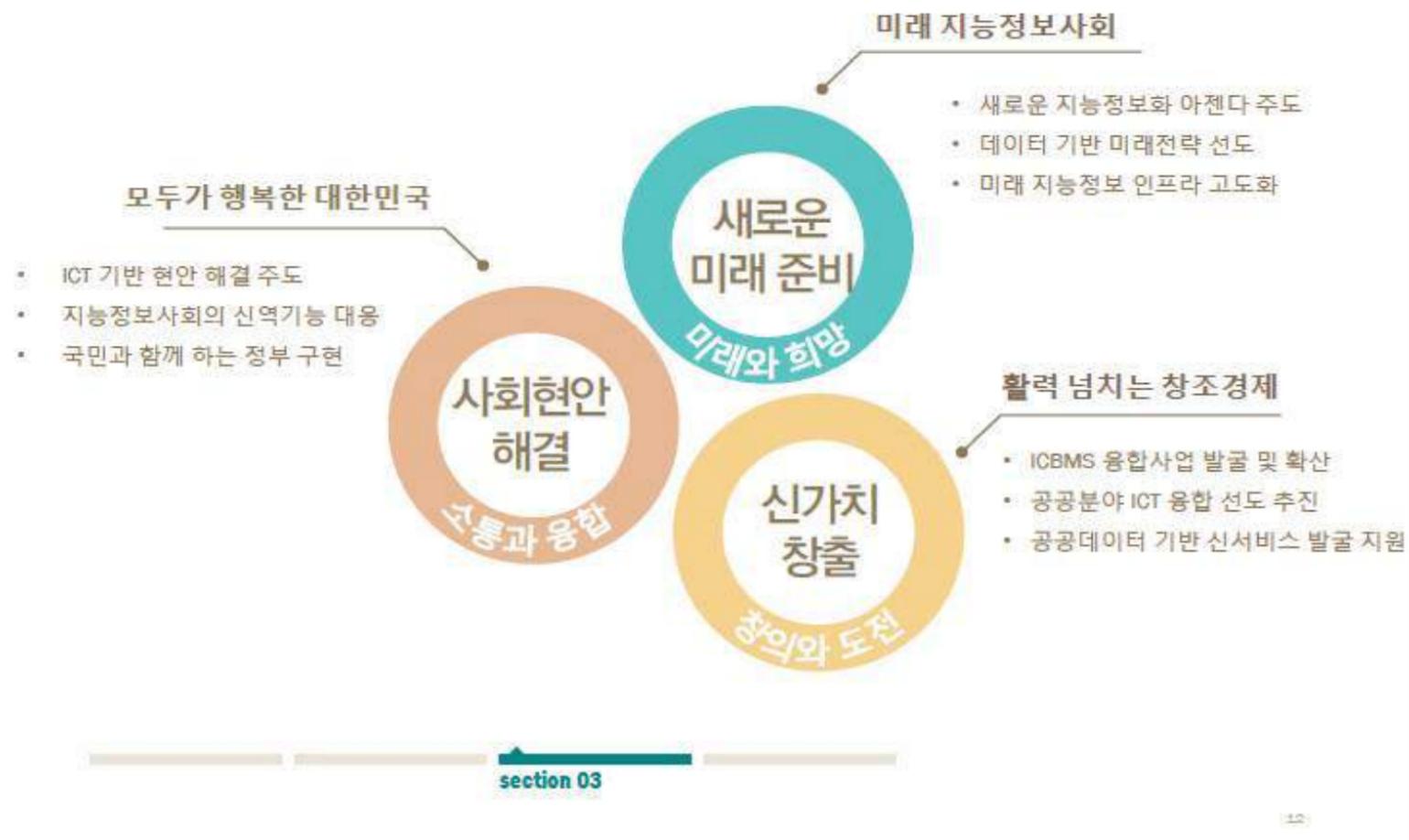
세계적인 경제 저성장 지속,  
불확실성의 증대, 사회현안을  
극복하기 위해  
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 국가전략의 청사진 마련

# ICT 인사이트

[발표자료]

SBS 2016년 지능정보사회의 원년 'Next 정보사회의 도래와 NIA의 사명'

## 지능정보사회 원년을 위한 NIA 3대 목표와 9대 핵심 추진과제



# ICT 인사이트

[발표자료] SBS 2016년 지능정보사회의 원년 'Next 정보사회의 도래와 NIA의 사명'

첫째, 미래 지능정보사회 추진기반을 마련하여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 새로운 지능정보화 아젠다 주도

- 지능정보사회의 구체적 추진과제 도출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 지능정보사회의 기본 구상을 위한 기획연구 추진

## 데이터 기반 미래전략 선도

- STEEP 분야별 미래이슈 탐지 및 분석 인프라 고도화
- 분야별 특화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활용 협의체 구성

## 미래 지능정보 인프라 고도화

- 지능정보사회 대비 융합인프라 확충·디지털실�크로드 개척
- 초연결지능망 발전전략에 따른 민간·공공망의 지원 강화
- 공공 WiFi 사업의 국정과제 목표 성공적 달성 지원

section 03

# ICT 인사이트

[발표자료] SBS 2016년 지능정보사회의 원년 'Next 정보사회의 도래와 NIA의 사명'

둘째, 활력 넘치는 창조경제를 위해 ICT 기반 새로운 가치창출을 본격화 하겠습니다.



### ICBMS 융합사업 발굴 및 확산

- ICBMS와 AI 기술을 접목한 신규 과제 기획 추진
- ICT 융합 신서비스 확대 발굴·추진
-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협업 기반 ICBMS 창업 및 사업화 촉진

### 공공분야 ICT 융합 선도 추진

- 국가 핵심정책 실현을 위한 공공 융합 확산과제 기획·추진
- 5G, IoT, UHD 등 성공적 평창 ICT 동계올림픽 전문지원
- ICT 신기술 융합 스마트 SOC 정보화계획 수립 지원

### 공공데이터 기반 신서비스 발굴 지원

- 22개 분야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조기 개방 추진
-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 활성화 및 성장 지원 강화

section 03

134

# ICT 인사이트

[발표자료]

SBS 2016년 지능정보사회의 원년 'Next 정보사회의 도래와 NIA의 사명'

셋째,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ICT로 사회현안 해결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 ICT 기반 현안 해결 주도

- 교육, 노동, 공공, 금융 등 우리 사회 주요 분야 현안 해결 방안 제시
- 지역현안 해결 등 ICT의 창의적 활용을 실현하는 과제 확산

## 지능정보사회의 신역기능 대응

-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신정보화역기능 대응전략 마련
- 제3차 인터넷중독 예방·해소 종합계획(16-18) 수립
- ICT 직업탐구 등 생산적 정보활용 중심의 예방교육 추진

## 국민과 함께 하는 정부 구현

- 정부3.0 추진 가속화로 ICT 기반 지속가능한 정부혁신 지원
- 전자정부 핵심이슈 대응 등 지식과 창의로 좋은 전자정부 추진

section 03

# ICT 인사이트



[발표자료]

SBS 2016년 지능정보사회의 원년 'Next 정보사회의 도래와 NIA의 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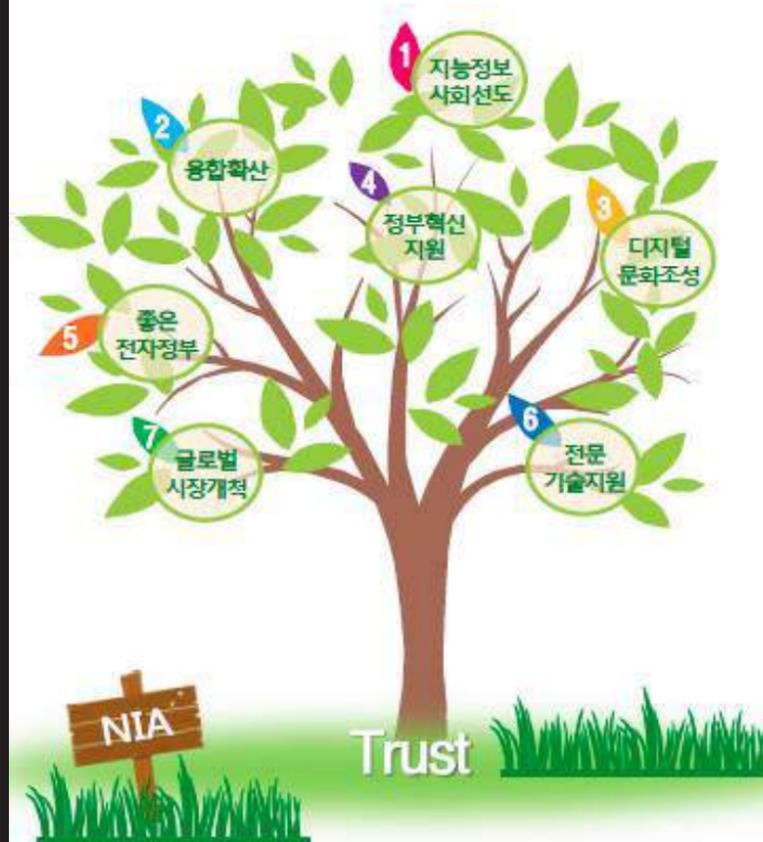


# ICT 인사이트

[발표자료]

SBS 2016년 지능정보사회의 원년 'Next 정보사회의 도래와 NIA의 사명'

## 2016년 NIA의 국민체감형 핵심 성과



- 1 데이터 기반 국가 위기상황 선제 대응  
ICT 기반 국가 미래전략 방향 마련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3대 분야 핵심 사회현안 진단
- 2 IoT 실증사업 추진을 통한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K-ICT 빅데이터센터, IoT오픈랩을 통한 창업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 ICBM, AI 기술 플랫폼 제공  
대구 헬스케어, 부산 스마트시티 등 지역 실증 사업 추진  
국가데이터 Map 작성
- 3 장애인, 결혼이민자 대상 찾아가는 1:1 방문 교육 추진  
인터넷·스마트폰중독 가정방문상담서비스 추진  
계층별·세대별 맞춤형 사이버 인성 교육 실시
- 4 산업적 활용도가 큰 22대 분야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발굴 확대
- 5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률 3% 달성  
국민 생애주기 온라인 맞춤 검색서비스 고도화  
119, 112, 122 등 긴급신고 비상접수체계 구축
- 6 국민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확대  
스쿨넷 이용 학교 확대  
공공wifi존 지속 확대  
청각·언어 장애인 '손말이음' 중계서비스 제공
- 7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IT봉사단 해외 파견으로 글로벌 청년 IT인재 육성

section 04

# ICT 인사이트 \_영상비평 : SBS 따뜻한 세상 스마트 혁명



[영상비평]  
SBS 일요 특선 다큐멘터리 <따뜻한 세상 스마트 혁명>

• 우리는 따뜻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

한국정보화진흥원 김휘은 주임

회사로 향하는 출근길, 아파트 안의 엘리베이터에서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스마트한 세상’이 가끔 차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스마트한 세상’이 따뜻하게 느껴진다면, 그 따뜻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지난 한 세기 동안 기술의 진보는 우리들의 일상을 바꾸었고, 특히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년 전 만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1995년 6월, 1500여명의 사상자를 낸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사용자가 극소수였던 그 때<sup>1)</sup>, 사람들은 어떻게 가족의 안부를 확인했을까요?

아마추어 무선사 최달용씨는 그 때의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최씨는 외출 중이었고, 평소 그 시간에 아내는 삼풍백화점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한 최씨는 무선사끼리의 연락을 통해 집으로 연락을 할 수 있었고, 아내가 집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에 대해 더 절실히 느끼고 전화기와 통신기에 더 애착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1) 2014년 기준 휴대전화 가입률은 113.5%이고, 이 중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4056만 명으로 전체의 70.9%를 차지한다. 1995년 당시엔 가입률이 3.6%이다. (출처 : 헤럴드경제(2015.3.19.), 살인·강도 줄고 성범죄 급증, 휴대전화 1인당 1대 넘어...한국사회지표)

# ICT 인사이트

[영상비평]  
SBS 일요 특선 다큐멘터리 <따뜻한 세상 스마트 혁명>



전화기의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 한 때는 6.25전쟁 이후입니다. 하지만 당시 전화기는 집 한 채 가격 정도였고, 전화기 한 대가 큰 재산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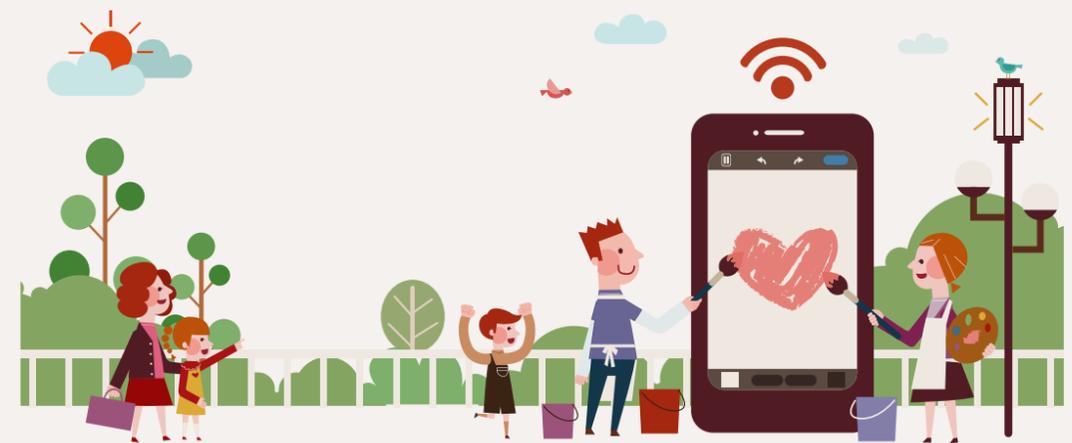
그리고, 1982년 국내 첫 무선호출기, 일명 ‘삐삐’가 도입되었습니다. 삐삐로 호출을 받고 전화하기 위해 공중전화기에 가서 줄을 서며 기다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공중전화기 앞에서 줄을 서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1996년, 발신만 가능한 ‘시티폰’이 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지국 10미터 반경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시티폰은 곧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드라마 ‘신사의 품격’(2012)를 보셨나요? 이 드라마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한 장면에서 주인공들은 구형 휴대폰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만 더 얇고 가벼우면 딱 좋을텐데...”, “에이 여기서 더 어떻게 작아져? 왜 아주 버튼도 다 없애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화면도 넓어진다고 그러지?”, “왜? 아예 핸드폰으로 TV도 보고 음악도 듣고 서로 얼굴 보면서 통화도 한다고 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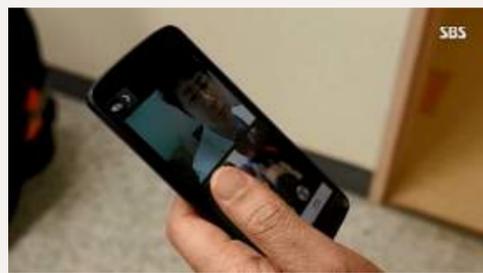
한 때는 농담정도로 여겨졌던 많은 것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지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은 초고속 인터넷, 이동통신, 컴퓨터의 발전과 맞물려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고, 지금 또 다른 기적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 ICT 인사이트

[영상비평]

SBS 일요 특선 다큐멘터리 <따뜻한 세상 스마트 혁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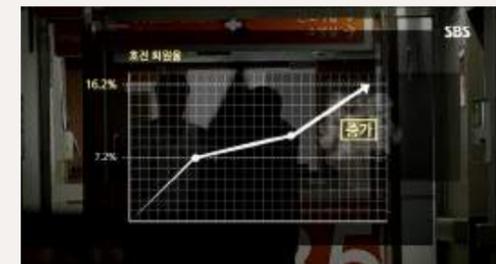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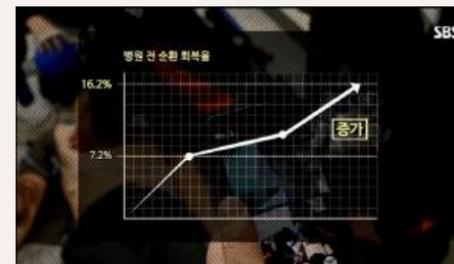


2015년 11월, 구조요청을 받고 119 구급대원들이 출동했습니다. 한 환자가 갑작스럽게 쓰러진 후 호흡이 멈췄습니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 한 구급대원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의아한 상황이지만, 대원이 통화하고 있는 상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였습니다.

구급대원이 착용한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의사가 환자를 볼 수 있는 '스마트 의료 지도 시스템'을 통해 전문의는 구급대원에게 환자와 관련한 응급조치를 지시합니다. 무선 영상기기와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통해 현장과 병원이 직접 연결되며, 덕분에 심정지 환자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덕분에 현재, 그 환자는 건강을 회복 중입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된 것은 작년 6월입니다. 시스템 도입 이전, 심정지 환자에게 병원 이송 전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시스템 도입 이후 정확한 약물 처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장과 병원을 바로 연결하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덕분에 에 많은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다.



시스템 도입 이후의 회복율과 퇴원율은 모두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임상 의학, IT 기술, 바이오산업이 각각 발전해왔다면 앞으로는 서로 융합이 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의 커뮤니케이션은 얼마나 더 큰 혁명을 가져올까요? 우리가 자고 일어나 피로를 느끼면 수면 밴드로 밤사이 수면 사항 확인, 지난 한 달간의 수면 데이터와 비교·분석, 관련 자료를 의사에게 전송하여 적절한 식단을 처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냉장고를 열지 않아도 내부에 있는 음식을 확인하여 영양분과 칼로리를 파악해줄 것입니다.

# ICT 인사이트

[영상비평]

SBS 일요 특선 다큐멘터리 <따뜻한 세상 스마트 혁명>



이러한 혁명은 직장인의 삶에도 큰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외근이 잦은 한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는 회의를 할 때 사내 메신저 시스템을 통해 영상 회의를 진행합니다. 대화창에는 설계도를 올릴 수도 있고, 어디에서나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의 영상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회의록을 작성할 필요도 없고 외근 현장에서 회의를 실시간으로 진행하면서 이동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또한, 한 커피전문점의 본사 또한 해외 58개의 매장을 관리하기 위해 서울본사와 LA 매장 간 화상회의를 진행하여 업무를 협의한다.

하지만,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한계는 사회가 조금 삭막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마트 도시 송도로 가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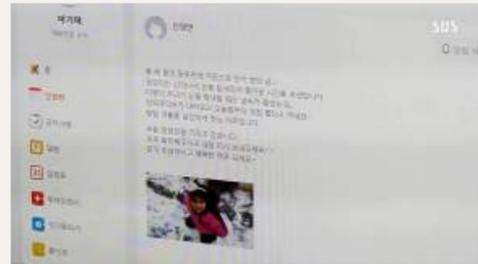


송도는 스마트 도시를 목표로 지어진 곳입니다. 이곳에선 저녁에 되면 집집마다 화상전화기가 켜집니다. 매주 한 번씩 열리는 바느질 교실을 통해 주민들은 화상으로 소통합니다. 화상 수업을 함께하는 주민들과 실제 모임을 갖기도 합니다. 이러한 화상 수업은 '마스터 벨'이라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요즘은 '동네 친구'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데 이곳의 아이들은 화상으로 언제든지 만나서 소통하며 즐겁게 놀고 있습니다. 바쁜 도시 아이들에게 영상으로 만나는 친구들은 새로운 소통의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고, 오히려 첨단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동네 친구를 만들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 ICT 인사이트

[영상비평]  
SBS 일요 특선 다큐멘터리 <따뜻한 세상 스마트 혁명>



소통을 위해 한 장소에 모여야 한다는 것은 옛말입니다. 꽃미남 셰프로 유명한 신호섭씨는 딸이 생기면서 외부활동을 줄였지만, 방송과 SNS를 통해 소통하는 일이 오히려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지하 스튜디오에 자신의 요리를 알리는 커뮤니티 활동을 하며 이유식을 만드는 방법을 공유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많은 이들이 요리를 따라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공유합니다. 신호섭씨처럼 본인이 가장 잘하는 것을 방송에서 보여주고 소통하는 1인 방송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많은 한 유치원은 모바일 알림장을 통해 아이들의 일상을 부모님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종이 알림장의 경우,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부모님들이 이해를 하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진 공유가 가능하고 번역 기능까지 있는 모바일 알림장을 통해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일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은 소통의 벽을 허물어 줍니다.



# ICT 인사이트

[영상비평]

SBS 일요 특선 다큐멘터리 <따뜻한 세상 스마트 혁명>



박경구  
카를이 올라가면 계층을 재고요 허치만을 주고  
그다음에 무선 전동으로 전송을 합니다



제 혈당 수치를 그래프로 보여주고  
PC로 다운로드해서 볼 수 있고



스마트 기기로 무선 계층 통해서  
문자를 올립니다

최근, IT산업의 최대 이슈는 사람과 사물, 프로세스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정보를 주고받는 사물인터넷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전 사람과의 소통을 넘어 사물로 소통의 대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물과 연결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사물인터넷을 통해 건강관리를 한다는 박경구씨는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어 매일 혈압과 당 수치를 체크해야 합니다. 하루의 수치는 인터넷을 통해 자동으로 스마트 기기에 모입니다. 2년 동안 모인 수치들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의사와 상담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박씨는

30여개의 사물인터넷 기기를 사용 중입니다. 사물과 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자 일상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활동인 소통. 소통하고자 하는 우리의 욕구는 첨단기술의 발달 아래 그 욕구를 충족해왔습니다. 상상과 기적으로만 보이던 일들이 현실 속에서 실현되고 있는 지금. 더 먼 미래에는 우리는 어떤 식으로 소통하게 될까요?

어쩌면 터치만으로 소통하는 삭막한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술 발전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마음을 나눌 기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또, 이 안에서 서로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진 자료의 출처는 SBS 일요 특선 다큐멘터리 66회 <따뜻한 세상 스마트 혁명>입니다.

<http://program.sbs.co.kr/builder/endDate.do?pg->

[m\\_id=22000003708&pgm\\_mnu\\_id=15703&pgm\\_build\\_id=4401&contNo=cu0528f0006600&srs\\_nm=66](http://program.sbs.co.kr/builder/endDate.do?pg-m_id=22000003708&pgm_mnu_id=15703&pgm_build_id=4401&contNo=cu0528f0006600&srs_nm=66)

# ICT 인사이트 \_외부 전문가 기고



[It's Time to Plug into Offline]

## 이제 Offline에 플러그인 해야 할 때



Yper-배달손세차 CSO **임석영**

**인**류 역사에 있어 가장 위대한 발명 3개를 내게 꼽으라면 주저 없이 인쇄술, 전기, 그리고 인터넷을 말하고 싶다. 인류는 인쇄 기술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가 공유될 수 있었으며, 전기를 통해 공유 속도가 다소 더딜 수밖에 없는 책에서 벗어나 더 많은 디지털 Device로 확장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인터넷은 공간이라는 제약에서 벗어나 공간의 제한을 뛰어넘는 '개방'과 '참여'라는 가치로 확장되면서 마치 살아 있는 생물처럼 끊임없이 자기 진화를 하고 있기에 가히 최고의 발명이 아닐까 싶다. 인류 최고의 발명이 내 20~40대에 관통 되고 있다는 것, 이러한 혁신을 만들어내는데 나 역시 소소한 일조를 하며 나의 역량을 발휘하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모르겠다.

### 연결의 진화, 모바일의 진화

이제 우리는 정보의 연결과 참여를 대표하던 Web2.0시대에서 '호모 모빌리언스'(Homo Mobilians)의 생활을 누구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Mobile은 인간을 개별적으로 인지하게 되면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뿐 아니라 사물과 사물 간에 유기적 복합체 (Organic Collective)로 진화하고 있다. 우리가 바라보고 접하는 오프라인의 모든 물건 등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면서 새로운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경험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새로운 생명력의 Next 핵심은 무엇일까? 혹자는 사물인터넷(IoT)라고도 말하고, 혹자는 빅데이터 라고도 말하며, 혹자는 O2O(Online to Offline)이라고도 말한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3가지 모두를 관통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Online 중심의 시대에 다소 소외되었던 Offline의 재등장이다.

# ICT 인사이트

[It's Time to Plug into Offline]  
이제 Offline에 플러그인 해야 할 때

## Offline을 진짜 연결하기

올해 5월 다음카카오가 모바일 네비게이션 앱 '김기사'를 서비스중인 록앤올(주)를 626억에 지분을 100% 인수했다. 월 이용자수 200만명, 35명 가량의 직원 수, 2014년 20억 매출로 여전히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인 기업이다. 다음카카오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Offline을 연결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는 느낌이다. 과연 다음카카오가 바라본 '김기사'의 가치는 무엇일까? '김기사'는 모바일 네비게이션 서비스이다. 오프라인 세상에서 사용자는 김기사 앱을 켜고 특정 장소가 방문한다. 친구를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인 음식점을 찾아가고, 가족들과 함께 쇼핑몰, 놀이공원을 찾아가는 등 어디서 출발하여 어떤 경로로 얼마만큼의 시간을 소요하여 목표한 장소에 도착했는지 '김기사'는 알고 있으며, 심지어 어떤 음식점/장소에 사람들이 많이 방문했는지를 알고 있다. 실제 김기사 검색을 통해 가고자 하는 장소를 사람들이 실제 얼마나 방문했는지를 통해 네이버보다 더 정확한 맛집 검증까지도 가능하다. 실제 김기사 앱을 조금만 살펴봐도 단순 네비게이션 서비스가 아닌 어마어마한 오프라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심지어 교통 트래픽 정보를

활용하여 카카오택시의 사용자 콜과 주변 택시와의 최적의 매핑 알고리즘까지 설계가 가능하다.(실제 하고 있다.)



발췌 : 다음카카오 온디맨드팀(카카오택시) 발표 자료

어떠한가? 사용자들의 Offline에서 실제 움직이는 행동과 Offline 매장/장소와 새로운 연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마치 온라인 안에서의 사용자가 행동하는 로그데이터를 분석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주는 Google analytics와 같은 데이터를 Offline 공간에서도 추적/분석하여 연결을 만들어 낸다면 또 새로운 가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 ICT 인사이트

[It's Time to Plug into Offline]  
이제 Offline에 플러그인 해야 할 때

## Offline을 진짜 연결한다는 것은?

이제 모든 사물에 인터넷을 연결하고 관계된 환경 데이터와 사람을 온라인과 연결한다는 것은 분명히 인터넷이 가져올 새로운 생명력의 Next 핵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카카오는 Offline을 연결한다는 것에 대해 김기사를 통해 이러한 생각을 이미 하고 있을 것이다. 카카오의 #검색의 진화 방향은 기존 네이버 검색처럼 온라인상의 정보를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살아 움직이는 Offline에 연결된 실시간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방향이 더 가치가 있는 방향 일 것이다. DB에 쌓인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연결해주는 것이 아닌 Offline에서 살아 움직이는 정보와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하여 가공하여 제공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Offline을 진짜 연결하는 생명력이 되지 않을까 싶다.

## 신뢰 가능한 Offline 정보 연결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보자. '김기사'와 같은 서비스의 특징은 사람과 Offline을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Offline에 진짜 연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 첫째로는 Offline의 검증된 1차 정보를 어떻게 얻어 낼 것이냐 하는 점일 것이다. 물론 김기사와 같은 네비게이션의 특성상 어느 정도 검증된 살아 있는(실제 운영 되고 있는-네이버의 경우는 실제 운영되고 있는 실시간 매장 정보를 끊임없이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이 정보를 수집하고 검증하고 업데이트하는 비용을 사용하고 있다.)정보를 가지고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한 정보는 해당 Offline에 특화된 O2O 서비스와 연계(오픈 API와 같은 오픈 플랫폼 화를 통해)를 통해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생활 O2O 서비스라는 카테고리에서 음식을 직접 배달해주는 배달의 민족과 같은 서비스는 말할 것도 없고 세탁물을 수거하여 세탁 후 다시 가져다주는 세탁 O2O 서비스라든가, 우리집/회사 근처의 손세차장과 연결하여 자동차를 픽업하여 손세차 후 다시 가져다주는 프리미엄 손세차 서비스라든가, 음식점의 실시간 데이터를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POS 단말기와 연결하여 모바일을 통해 고객이 다양한 음식점 정보 및 메뉴정보를 조회하고 예약대기, 결제, 메뉴 주문(스타벅스의 사이렌오더와 같은), 마일리지 적립 등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서비스와의 연결을 통해 Offline안에 갇혀 있던 정보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기초적인 연결 중개가 활성화되리라 생각한다.

# ICT 인사이트

[It's Time to Plug into Offline]  
이제 Offline에 플러그인 해야 할 때

## 실시간 리얼 데이터의 연결

둘째로는 Offline의 특성상 현재까지 연결하기 어려웠던 실시간 리얼 데이터의 연결이다. 현재 음식점에 대기손님은 몇 명인지? 지금 특정 음식점에 주문을 하면 몇 분 후에 음식을 배달받을 수 있는지? 이번 주 해당 음식점의 판매1위 메뉴는 무엇인지? 몇 명이 실제 방문을 하고 주문을 했는지? 이런 실시간 리얼 데이터들이 고객들에게 제공된다면 Offline의 Google analytics와 같은 새로운 가치들이 만들어 질 수 있다. 이미 대부분 음식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POS 단말기는 이와 같은 정보를 알고 있지만 아직은 이런 정보가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고객과 연결되어있지 않고 있을 뿐이다. 만약 카카오톡과 김기사, 그리고 모든 매장의 POS가 실시간으로 연결된다면 굉장히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필자는 예측한다. 아마도 조만간 매장 POS 기업들의 기업 가치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공유경제의 성공적인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주차공간 공유 서비스 관점에서 보면 더 명확히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주차 공간(거주자우선 주차공간, 개인소유 빌라, 교회 등)에 주차 차량 감지 센서와 다른 차량이 주차 가능함을 알려주는 IoT 디바이스가 장착되어 진다면 모바일을 통해 현재 내가 가고자 하는 지역에 주차 가능한 공간과 사용가능 시간까지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주차공간이 비워져 놓고 있는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이미 이노온이라는 스타트업이 관련 디바이스를 개발하여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음-http://www.ino-on.com) 이제 카카오톡의 #검색을 통해 이런 Offline 실시간 정보와 서비스를 자신의 위치 정보와 컨텍스트 상황에 맞게 제공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 실물과의 연결, Delivery

마지막으로 정보와 데이터를 연결하는 수준을 지나 Offline을 진짜 연결해내는 것을 완성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 쿠팡의 로켓배송, 아마존의 대시, 드론을 이용한 배송, 배달의 민족이 확장 하고 있는 배민라이더와 같은 서비스의 공통점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위에 언급한 서비스의 공통점은 모두 실물을 Delivery하기 위한 서비스라는 점이다. 대부분의 Offline은 그 특성상 실물을 기반하고 있다. Online에서 이미 활성화된 연결인 디지털 콘텐츠나 커뮤니티, 정보성 상품에서 Offline에 아직 갇혀 있던 실물들이 연결 되고 있는 것이다.

# ICT 인사이트

[It's Time to Plug into Offline]  
이제 Offline에 플러그인 해야 할 때

필자가 서비스 중인 손세차 배달 O2O 서비스인 '와이퍼(www.yper.co.kr)'의 케이스로 본다면 단순히 주변 손세차장 정보와 실시간 예약 상황, 예약 결제 등을 서비스하는 것이 아닌 바쁜 고객이 손세차를 위해 자신의 시간을 소비할 필요가 없도록 고객의 자동차를 직접 픽업하여 손세차장으로 가져와 손세차 후 다시 돌려드리는 서비스가 이에 해당 될 것 같다. Offline에 아직 갇혀 있는 손세차장과 정비소를 온라인과 연결 하여 자동차라는 실물을 Delivery하는 서비스인 것이다. 결국 가장 효율적인 Delivery 시스템과 조직을 가지고 있는 팀이라면, 고객의 생활 속에서 습관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역에서 해당 서비스를 습관화시킬 수 있다면 진정한 Offline을 연결해 내는 기업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 보유자들이 가장 습관적으로 서비스 받는 서비스인 세차 서비스 시간을 돌려드리는 손세차 배달 서비스 '와이퍼-www.yper.co.kr'



와이퍼가 최근 폭스바겐 딜러사와 손잡고 시작한 정비센터 픽업&리턴 서비스, 수입자 공식 정비센터를 고객이 직접 가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 [www.pikup.co.kr](http://www.pikup.co.kr)

배달의 민족의 향후 전략 또한 그러한 것 같다. 배달의 민족은 작년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으며 '배민라이더스'라는 자체 배달조직을 확충하였었다. 결국 이런 전략의 배경 속에는 배달이 다시 핵심으로 등장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배달 시장이 10조원 가량이고 아직 배달 안되는 음식까지 합치면 20조원을 넘는다. 아직 시장 초기다. 성장이 우선이다" 라고 말씀하신 배달의 민족 관계자 말씀 속에서 아직 배달 안되는 시장 10조를 자체 배달 조직을 통해 다시 성장 해보겠다는 의미가 느껴진다. 맛있는 음식을 빨리 멋지게 배달 받고픈 고객의 니즈를 실현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배달의 민족의 가장 중요한 핵심 아닐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멀지 않아 세상의 모든 물건들이 디지털 디바이스로 바뀌고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새로운 생명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조만간 모든 Offline을 연결하여 추적하는 Google analytics와 같은 서비스가 나올지 모른다. 아니 나올 것이다. 기술적인 진화 축에서도 의미 있는 진화가 계속 일어나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세상은 Offline의 핵심을 틀어쥐고 있는 사람에게도 더 많은 기회를 던져 줄 것 같다.

아직은 우리가 Offline에서 살고 있는 시간이 더 많지 않은가?

포토 앨범



**포토 앨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 전자정부협력센터 개소식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4	5
6	7	8	9	10 ▶ [3.10~3.25] 한국정보올림피아드 지역대회 참가신청서 온라인 접수	11 ▶ 매일경제 M클린 발대식 개최 (매일경제) ▶ 청소년 정보윤리교육 확대를 위한 NIA-시청자미디어재단 양해각서 체결	12
13	14	15 ▶ WB-NIA 공동주최 '제1회 지식공유컨퍼런스' 개최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 ▶ '16년도 국가DB 2차 심의위원회 개최 ▶ 평창올림픽 IoT Street 조성을 위한 사전 기획반 발족	16 ▶ [3.16~3.17] '16년 공공부문 EA 및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워크숍 개최(충북 청주)	17 ▶ Open API기반 스마트 생태계조성 프로젝트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결승전 개최 및 시상 (광화문KT올레스퀘어)	18 ▶ 바람직한 전자정부 연구회 착수회의 개최(정부서울청사)	19
20	21	22 ▶ K-ICT 빅데이터센터 판교이전 개소식(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 빅데이터 국제 컨퍼런스 (Bigdata Analytics)개최 (코엑스 그랜드 볼룸)	23	24	25 ▶ NIA-국가기록원 전자정부·전자기록 MOU 및 학술세미나 개최(대전기록관)	26
27	28	29	30 ▶ 2016년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제 기관 설명회 개최(정부대전청사) ▶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자 간담회 개최(광화문)	31		

# 디지털 통 다시보기

2013

11월  
NOV

12월  
DEC

2014

1월  
JAN

2월  
FEB

3월  
MAR

4월  
APR

5월  
MAY

6월  
JUN

7월  
JUL

8월  
AUG

9월  
SEP

10월  
OCT

11월  
NOV

12월  
DEC

2015

1월  
JAN

2월  
FEB

3월  
MAR

4월  
APR

5월  
MAY

6월  
JUN

7월  
JUL

특집호  
2015년  
대구계주지방이전  
특집호

10월  
OCT

11월  
NOV

2016

1월  
JAN

2·3월 통합본  
FEB  
& MAR

\* NIA 뉴스레터 디지털 통(通)은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www.nia.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